

전북도교육청, 전직원
청렴통합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설명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오후 4시
부터 2시간 동안 2층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통합교
육을 실시했다.

청렴교육은 도교육청 소속 직원들
의 청렴마인드 함양과 청렴 문화
확산 위한 것으로 매년 한 차례
이상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신영용 국민권익위원
회 청렴연수 전문가를 초빙해 청
탁금지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및 부패신고 활성
화 방안 등을 설명 듣는 시간으로
꾸러졌다.

또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공
무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렴은 공직자
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
한 덕목"이라며 "이번 특강을 통해
공직사회에 청렴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군산대 대학일자리센터
하반기 블라인드 채용 설명회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지
난 14일 군산대학교 학생회관 내 취
업세미나실에서 '2018 하반기 블라
인드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공공기관 진출 희망학생
들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이해
도 제고를 통해 취업 전략 관련 눈
높이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진
행되었다.

프로그램은 채용 평가요소별 평가
가법 적용방안, NCS 기반 면접 전
형 시 평가도구 및 평가 척도 이해
하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는 "이번
채용설명회는 블라인드 채용 프로
세스를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바른 이해와 접근 방법을 통해서
재학생들의 전략적 취업준비를 지
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교수미 학생(영
어영문 4학년)은 "설명회를 통해 국
가지무능력표준(NCS)에 대해 더 많
은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채용의 호
름이 불필요한 스펙이나 배경 위주
경쟁이 아니라 직무 능력 중심 채
용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는 "이번
채용설명회 공정 채용을 확산시키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
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교육청, 단위학교로 권한 배분 추진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위해 405건 폐지·개선... 원도심학교 사례집 등 폐지

전북도교육청이 유·초·중등 교육과 관
련한 권한을 대폭 내려놓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유·초·중
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전북교육청
이 선제적으로 도교육청 사무를 단위
학교로 배분하기로 한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단위학

교를 위한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TF를 운영하여 도교육청 자체 사업
및 사무 234건 중 162건, 교원 대상
회의·연수·워크숍 62건 중 31건, 학
교 발송 공문 310건 중 212건 총 405
건을 폐지·개선하고 이와 함께 예산
사용에 관한 개선안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교원들이 교과교육

과 생활교육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
도록 지원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정
책인 지 검토 ▲교원들의 과도한 행정
업무 경감 방안 검토 ▲모든 학교에
적용이 필요한 정책인지에 초점을 두
고 진행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 자율선
택과제 사례집, 어울림학교 사례집,

원도심학교 사례집 등 각종 사례집
발간사업이 폐지됐다.

또 또래나눔 성과보고회, 교과교실
제 운영결과 보고회, 꿈돋움 영재학생
동아리 운영 발표회 등과 같은 성과
보고회도 없애기로 했다.

학교에서 발송을 요하는 공문도 대
폭 줄이거나 없애기로 했다. 특히 실
적을 제출토록 하거나 관행적인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은 폐지·개선하고, 단
순한 제출 자료는 메신저·메일 등을

활용토록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이
초·중등교육 교육권한 배분 1차 추
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각 부서에서 중복되
는 업무 개선의 여지가 있는 업무들
은 과감히 내려놓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하반기에도 감사담
당관 및 행정국을 중심으로 한 제2차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기계공고 LAJ팀 이찬석·전민건 대상 수상

제15회 전국학생로봇경진대회서

국립 전북기계공고는 지난 9월
1일 열린 제15회 전국학생로봇경
진대회에서 이 학교 로봇자동화와
학생과 진양우 지도 교사가 최우
수 팀에게 주어지는 국회의장상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학교로봇교육진흥회에서 주
최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서울시 구로구 등에서 후원
한 이번 대회는 '우리의 삶을 바꾸
는 로봇 기술'이라는 주제로 화제
난 강소를 무선 캡을 보여 무한케

도로 신속히 도착해 워터펌프로
소화액을 뿌리고 더 큰 화재일 경
우 판지를 통해 소화불을 투척해
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 제어를 했
다.

대상을 수상한 LAJ팀(이찬석 2
년, 전민건 1년)은 기능 서밋
(summit)과 위드(with)의 교육으로
실력과 기술을 높였으며, 이 대회
에서 함께 장려상을 수상한
CMTISM팀(문동주 2년, 김태환 2
년, 진민석 1년)도 로봇자동화와

전공 심화 맞춤형 교육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

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에서도
금, 은, 동상을 수상해 12월에 열리
는 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 출전
권을 획득한 진양우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더 큰 희망
과 믿음을 갖는 교육에 전념했
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회 입상자들에게 대한
시상식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일본 5개 대학과 유교문화 역사 학술교류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
단(단장 변주승)은 최근 전주대 한지
산업관에서 '일본에서 향약이론의 수
용과 변용·근세에서 근대로'라는 주
제로 일본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
의 인사오싱(殷宗星) 전문연구원을 초
청하여 국어전문가 강연을 진행했다.

인사오싱 연구원은 강연에서 '여씨
향약(呂氏鄉藥)'으로 대표되는 향약
이론이 일본에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이후 근세와 근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민중생활에 적용되었는지를 중점적
으로 강의했다.

강연 이후에는 전주대와 일본 유교
문화 연구자들이 논문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면서 한·일 유교문화 학술교
류를 진행했다. 일본에서는 후지모토
세이지로(국립 와카야마대학 명예교
수), 사와야마 미카코(국립 오카야마
대학 연구원), 오스기 유카(다이호분
카대학 교수), 가나즈 히데미(리츠메
이칸대학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이번 학술교류
를 계기로 앞으로도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및 일본 역사관련 연구자들과
지속적으로 학술교류를 진행할 계획
이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1년
에 설립되어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
별 거점연구소 협동연구사업과 한국

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기초자료 사
업 등의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2018년
5월 1일에 2018년도 인문학국플러스
(HK+)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유교
문화의 탈영토화,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 공동체'라는 아젠다를 연구하
고 있다.
/김재훈 기자

한전 익산지사 원광대학교 전기공학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와 원광대학
교는 최근 한전 대회의실에서 산학협
력 확대 대학생 진로탐색 지원을 위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한 양 기관은 익산시 관내 초·중
학생들을 위한 재능 기부 활동 내실
화, 대학생 진로 탐색 지원 및 전력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조 체계 구
축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긴밀
한 협력을 다짐했다.

더불어 한전 익산지사는 "2016년 11
월 진로 체험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
한, 교육부 주관 교육 기부 진로 체
험 인증 기관으로 선정 됐다"며, "년
간 4개 학교 대상 (진기에너지 Q&A
및 멘토링),(사육 전력 설비 견학 및
VR 체험),(태양광 자동차 모형 제작)
등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올 해에는 원광대학교 전기공학
과 학생들과 합동으로 행사를 진행하여
지역 사회의 큰 관심을 받아 왔다.



취업을 준비하는 원광대학교 전기공
학과 학생들을 대상, 자기 소개서 첨
삭, 필기 전형 노하우 전수 및 모의
면접 등 연간 2회 공공 기관 취업 멘
토링' 활동을 하기로 했고 전력산업
에 관한 업무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
가기로 했다.

이건구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는
"미래 에너지 산업에 이끌어 갈 인재
를 육성,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산학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
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호원대, 제9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간호학과
가 지난 14일 교내 대강당에서 제9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호원대학교 간호학과(학과장 성은
옥)는 매년 임상실습을 앞둔 2학년 학
생을 대상으로 나이팅게일의 생명 존
중과 봉사정신을 본받아 예비 간호사
로서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 선서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선서식에서는 간호학과 선서생
67명의 선서문 낭독과 촛불의식 및 장
학금 전달식, 학술제 시상식이 진행되
었다. 특히 호원대 간호학과 동창회
(회장 배상범)에서 우수 학생에게 장
학금을 전달하여 선·후배 간의 돈독
한 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학과 성은옥 학과장은 "이번 선
서식을 통해 예비 간호사로서 첫 발
을 내딛는 학생들이 전문 지식과 실



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따뜻한 간호사로 성
장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과 소명의
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선서식에는 호원대학교
강희성 총장을 비롯한 학내 주요 인
사 및 학부모, 재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한간호협회 전라북도
간호사회 인옥희 회장, 군산시보건소
전형태 소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